

잠수의 역사와 출가(出稼)물질의 요인*

김 영** · 양징자*** 글
 정광중**** · 좌혜경***** 옮김

A History of Ama Divers and the Factors to Affect their Seasonal Migrant Diving

Kim Young, Yang Jing-Ja / Jeong Kwang-Joong, Cha Hae-Kyung

목 차

1. 잠수의 역사
2. 잠수의 출가(出稼) 물질 요인

-
- * 이 글은 1988년에 김 영(金榮)씨와 양징자(梁澄子)씨가 공동으로 집필한 『바다를 건넌 조선인 해녀-보소반도의 잠수를 방문하여-(海を渡った朝鮮人海女-房總のチャンスを訪ねて, 東京: 新宿書房)』라는 단행본에서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책의 내용구성은 해녀들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중심으로 엮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본 글만큼은 논문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제주도의 해녀를 연구하는 젊은 층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소개하게 되었다. 아울러, 위의 단행본은 조만간 역서로 출판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 ** 1959년에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조선중고급학교를 거쳐 와코대학(和光大學) 인문학부를 졸업하였다. 해당 저서를 집필할 당시는 침구사(鍼灸師)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4인의 재일동포 여성과 함께 조선여성사독서회를 주재하여 『女性通信』을 편집·발행하고 있었다.
- *** 1957년에 홋카이도(北海島)에서 태어났으며, 도쿄조선중고급학교를 거쳐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문학부를 졸업하였다. 해당 저서를 집필할 당시는 김 영(金榮)씨와 함께 조선여성사독서회를 주재하면서 『女性通信』을 편집·발행하고 있었다.
- **** 현재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전공은 인문지리학이다. 1994년 니혼(日本)대학 대학원 이공학연구과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자연지리학사전』(한울아카데미, 1996, 공저), 『지리학강의』(한울아카데미, 2000, 공저) 및 『지리학을 빛낸 24인의 거장들』(한울아카데미, 2003, 공저)을 비롯하여 많은 논문이 있다.
- ***** 현재 제주도 문화재 위원으로 제주대학교 강사와 해녀 프로젝트 책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1992년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전공은 민속학이다. 주요 저서로는 『제주전승동요』(집문당, 1993), 『민요시학연구』(국학자료원, 1996) 및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민속론』(푸른사상, 2000)을 포함하여 다수의 공저와 논문이 있다.

1. 잠수의 역사

1-1. 잠수의 기원

제주도에서는 나잠 어업자를 「잠수(潛嫂)」 외에 「잠녀(潛女)」 혹은 「해녀(海女)」라고 한다. 본글에서는 보소반도(房總半島)의 어머니들에게 배워 기본적으로는 잠수라고 했지만, 여러 자료에서는 「해녀(海女)」라고 표기한 것이 많다¹⁾.

해녀란 일본어의 아마(海女)를 한국어 발음으로 읽은 것으로서 1910년 이후에 정착한 용어이다. 다시 말해, 용어의 쓰임새는 일제 강점기(식민지 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근래 한국에서는 본래의 호칭이었던 잠수나 잠녀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소반도(房總半島)의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많이 사용치 않는 잠녀라는 호칭은 1936년부터 1937년에 걸쳐 제주도를 조사했던 이즈미 세이치(泉 靖一)의 제주도(『濟州島』)에 등장한다²⁾. 더욱이 지금으로부터 360년 전에 쓰여진 이견(李健)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記』)(이하, 『풍토기』로 약술함)에도 잠녀라는 기재가 보인다. 아래의 내용은 그 일부이다.

해산물에는 오로지 생복(生鰓), 오적어(烏賊魚), 분곽(粉蠶), 옥두어(玉頭魚) 등 여러 종이 있다. (略) 蠶(곽 : 해초, 미역)을 채취하는 여자를 잠녀라 하고, 2월부터 5월에 이르기 전까지 바다에 들어가 곽(蠶)을 채취한다. 곽을 채취할 때 즉 잠녀는 발가벗은 상태로 물가에 두루 퍼져 낫을 가지고 바다 위를 떠다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 곽을 캐어 끌어올리는데, 남녀가 서로 섞여 있으면서도(相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생복을 잡는 것도 또한 이와 비슷하다(略)³⁾. (하선 부분은 원저자)

이 『풍토기』는 이견이 제주도에서 유배의 몸으로 억류되었던 1628년부터 1635년까지 7년간에 걸쳐 본 기록으로서, 말하자면 이것이 잠수에 관한 가장 오래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의 기원은 16~17세기경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주

1)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0(崔在錫 「제주도 잠수(潛嫂)가족의 권력구조」에 소개됨— 『동양학』, 제5집, 1975).

2) 泉 靖一,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1966.

3) 李 健, 『濟州風土記』, 譯·今西龍(今西龍, 『高麗及李朝史研究』, 1974).

의 깊게 살펴보면 더 오래된 문헌에도 잠수를 시사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1105년 탐라(제주의 옛 지명)군의 구당사(句當使)인 윤응균이 제출한 「남녀나체 조업금지」라고 하는 발령도 그 중 하나이다.

또한 민경임은 「한국 해녀의 역사 및 생활실태」라는 연구 속에서 6세기초의 기록에도 잠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 권 19, 고구려본기, 문자왕 13년 하(夏) 사월조(四月條)에 있는 「가즉섭라소산(珂則涉羅所産)」(제주도에서 진주 또는 패류가 잡혔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진주 채취는 잠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시사하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산 진주는 위(魏)나라에 조공되고 있었다고 한다. 문자왕 13년이라면 서기로는 504년이다. 어획물의 기록으로부터 추측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는 잠수의 존재에 대하여, 미야모토(宮本常一)는 일본의 역사서 속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인현(仁賢) 천황 6년(493)에 히타카키시(日鷹吉士)를 고려에 보냈을 때, 아키타메(飽田女)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인 아라키(鹿寸)가 키시(吉士)와 함께 고려로 가는」것을 「울며 슬퍼했다」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아키타메(飽田女)라고 하는 사람은 한백수랑한(韓白水郎嘆)」의 손녀에 해당하는 여성이었다. 여기에서 복잡한 인간관계는 제쳐두고라도, 조선의 해인(海人 : 아마)이 일본으로 건너와 정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실에서부터 『엔기시키(延喜式)』(927년)의 「주계식상(主計式上)」 기사 속에 등장하는 탐라포(耽羅鮑)는 제주도산이라기 보다는 제주도 해인(海人)이 잡은 전복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미 제주도와 일본 사이에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⁴⁾.

일본의 북큐슈 지방과 한반도 남부, 그리고 제주도를 연결하는 해역에서는 교류라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현해탄생활문화권」이라 해야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⁵⁾. 그리고 그 해역을 잠수어업권으로 활약했던 사람들은 신석기(繩文) 후기에 일본이나 한반도 남부에 이주한 남방계 해인(海人)이라고 한다⁶⁾. 이러한 학설들은 관련근거가 부족한 잠수의 루트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흥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中村由信 寫眞集, 『海女』, 解説・宮本常一, マリン企劃, 1978.

5) 田中幸人・東靖晋, 『漂民の文化誌』, 葦書房, 1981.

6) 宮下章, 『海苔の歴史』, 全國海苔問屋共同組合聯合會, 1970.

1-2. 제주도에 남성 잠수(아마)는 있었는가

일본의 아마(アマ)에 대한 표기에는 해인(海人), 해녀(海女), 해사(海士), 어인(漁人), 잠녀(潛女), 수인(水人), 백수랑(白水郎)…… 등이 있는데, 이들은 남녀 양쪽을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일본에는 남성 잠수(아마)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제주도의 아마에 대한 표기에 있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성 잠수(아마)를 나타내는 용어밖에 없고 남성 잠수(아마)는 없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대만에서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일본과 대만에 가까운 제주도에도 과거에는 남성 잠수가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연적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풍토기』의 「남녀가 서로 섞여(相雜)있어……」라는 문장과 1105년의 「남녀나체조업금지」에 대한 발령은 그러한 추측을 방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 잠수(아마)에 대해서는 『풍토기』에서 잠녀(潛女)라고 호칭까지 명확하게 기록돼 있는 것에 반하여 남성 잠수에 대한 존재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남성들도 활발하게 잠수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잠녀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호칭이나 모습도 소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위에 제시한 일부의 문헌에 등장하는 남성들의 역할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민경임은 남성 자신들도 잠수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 말하는 배의 키잡이(舵子)처럼 여성 잠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혹은 일본의 남성잠수(아마)가 그러했던 것처럼, 남성들이 잠수어업도 하지만 일반적인 어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은 특별히 기록되지 않고 물질(나잠어업) 전문의 여성들만 주목되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존재는 『조선왕조실록』 성종(成宗) 권 226, 20년(1489) 3월 계유일조(癸酉日條)에도 기록되어 있다.

…… 臣聞, 沿海來去濟州人, (中略) 臣見此人, 本不農業, 專以捕魚資生, 故諸邑守令稱爲餵作干

즉, 농업은 하지 않고 오로지 어업을 하며 생활을 영위했다고 하는 제주도 출신의 「복작우(餵作干)」라 부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전복을 잡는 사람—바로 남성 잠수(아마)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제주도로부터 남성 잠수가 사라져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교의 영향이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에도 유교의 남녀 유별사상이 들어옴으로써 여성들이 잠수하는 바다 근처에 남성들은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유교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이 나체로 잠수하는 일은 더더욱 저항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계속해서 잠수 일을 지속하고 남성은 바다로부터 멀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남성들이 다른 어업에도 종사하고 있어서 잠수 일은 단순히 부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육지(반도부)와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여성들이 협소한 농지를 이용하는 농업에만 의존하고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었던 자연조건도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잠수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과정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잠수가 북쪽의 아오모리현(靑森縣)에서부터 남쪽의 오키나와현(沖繩縣)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는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제주도 이외의 그 어디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래 전에는 한반도 남부에도 잠수가 존재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민경임이 주목했던 「가(珂)」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속의 신라나 백제의 두 본기(本紀)에도 나타나며,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해조류와 전복 기록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부 다른 지방의 토산품 조에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 지방의 잠수는 언제 그리고 왜 도태하게 된 것일까. 그 배경은 아쉽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2. 잠수의 출가(出稼) 물질 요인

2-1. 일본으로의 출가물질의 발단

16~17세기에 출현했다고 알려지는 잠수가 이미 5세기경에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가정한다면, 잠수는 상당히 오랜 시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더불어 다른 지역으로 물질하러 다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잠수가 물질하는 모습은 제주도 연안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풍물이 돼 왔다. 그리고 마스다이치지(槲田一二)의 「제주도 해녀의 지지학적 연구」(지지

학적 연구라고 약술함)에 의하면, 출가물질은 1859년 경상도 목도(牧島)로의 출어가 효시이고 또한 일본으로는 1903년(明治 36)에 미야케지마(三宅島)로 나간 것이 최초의 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후에 출가 해녀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1930년에 3,860명, 1931년에 3,950명, 1932년에는 5,078명 등 많은 수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1932년 제주도해녀어업조합원 총수인 8,862명의 약 57%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반도부로 진출한 출가 해녀수는 3,478명, 일본으로 진출한 출가 해녀수가 1,600명이었다. 해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한반도의 어장에 비하여 일본에는 여성 잠수(海女)가 12,930명, 남성 잠수(海士)가 18,763명으로 총 31,693명이 있었고, 더욱이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배경까지 고려한다면 일본으로 진출한 출가물질 해녀는 비교적 적은 수였다고 할 수 있다.

출가지역(出稼地域)을 보면, 1933년(昭和 8) 한국의 반도부에는 황해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었고, 일본으로는 도쿄도(東京都 : 三宅島, 大島),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시즈오카현(靜岡縣), 미에현(三重縣), 도쿠시마현(德島縣), 고치현(高知縣), 가고시마현(鹿兒島縣), 나가사키현(長崎縣 : 對馬島) 그리고 혼슈(本州)의 가장 북쪽인 아오모리현(青森縣) 시모키타반도(下北半島)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이르고 있었다⁷⁾.

일본인 해녀의 조선 출어(出漁)

한편, 일본의 남성 잠수(海士)와 여성잠수(海女)들이 예전부터 한반도 방면으로 출가물질을 한 경우도 있었다. 1879년경에 야마구치현(山口縣) 오우라(大浦)의 해녀들이 울릉도 방면으로 진출한 적이 있었고, 1894년(明治 27)에는 남성 잠수들도 전라남도의 흑산도 방면으로 진출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불과 4년여 정도의 기간에 걸쳐 어업을 겸한 통어선(通漁船)은 44척(1척 당 7~10명)으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에히메현(愛媛縣), 오이타현(大分縣), 나가사키현(長崎縣), 야마구치현(山口縣), 구마모토현(熊本縣) 및 후쿠오카현(福岡縣) 출신자로서 주로 출어하는 곳은 제주도, 소안도, 흑산도, 부산을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지방이었다.

해녀들은 야마구치현(山口縣) 오우라(大浦) 외에도 미에현(三重縣) 시마반도(志摩

7) 樹田一二, 「濟州島海女の地誌學的研究」(『大塚地理學會論文集 二』, 1934).

半島)의 이세(伊勢) 해녀들이 울산, 영일, 부산, 안도(雁島) 및 거제도 등으로 진출했는데, 1900년에는 해녀를 싣고 다니는 통어선이 40척에 달하기도 했다⁸⁾. 그러나 「지학적 연구」에 의하면, 1895년부터 제주도 잠수가 한반도로 진출함에 따라, 이세(伊勢) 해녀들은 점차 그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고 한다. 이것은 제주도 잠수가 「이세(伊勢) 해녀들이나 일본 내 다른 지역의 해녀에 비하여 품삯이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저렴한 품삯」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제주도 잠수가 바다 속에서 추위에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스다이치지(槇田一二)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제주 해녀들은 앞서 서술했듯이 조업(잠수일) 시에는 테왁(부표)에 의지하여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납덩어리를 사용하지 않고 깊은 바다 속까지 잠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납덩어리를 사용하는 해녀들처럼 이동에 필요한 배나 선주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물질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이세(伊勢) 해녀들의 출어 감소는) 전술한 연안지방(경상남도 방어진, 울산군 포항)에서는 해류관계에 의한 여름철 수온이 7월에 평균 18.6도, 8월에 21도 즉 7·8월이 바뀌는 시기에 있어서도 20도 내외이기 때문에, 이세(伊勢) 해녀 <미에현(三重縣) 후타미(二見) 하타마메사키(幡豆崎)에서는 7월에 29.2도, 8월에 26.5도임>들은 한 달간 조업을 하면 불과 1주일밖에 견딜 수 없는데 반하여, 제주해녀 <한반도 남해안은 7월에 22.8도, 8월에 22.7도임>들은 15일간의 조업에도 견디내며, 1일 물질시간도 제주 해녀가 훨씬 길다. (하선 부분은 원저자)

보소반도(房總半島)의 잠수 어머니들은 출가물질을 하는 곳에서도 전부 보합제였다고 말하지만, 당시는 주로 '우라우케(浦受け)'라고 하는 연안어장의 권리를 이양 받은 책임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다.

미야모토(宮本常一)씨에 의하면, 메이지(明治) 경의 해녀들은 출가지역에서 연안어장의 권리를 산 사람에게 고용되어 「임금은 월급제로 하되 해산물의 일정량을 채취해야만 하며, 그 양을 초과하면 1관(貫)에 얼마라는 형태의 비율로 더 받는 식」⁹⁾의 임금제 하에서 출가물질을 행하고 있었다 한다. 이것은 일본인 해녀의 경우이지만, 「지학적 연구」속에서 「임금」에 대해 운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출가 초기의

8)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54.

9) 中村由信 『前掲 寫眞集』, 1978.

제주도 잠수들도 동일한 시스템에 의거하여 출가물질이 운용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임금에다가 잠수능력도 더 뛰어나다면, 그런 잠수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결국, 일본의 이세(伊勢) 해녀들은 1929년을 마지막 시점으로 하여 한반도로의 출가물질은 행하지 않게 되었다.

일본 잠수기(潛水器) 어업자의 진출

19세기말에 제주도 해녀들이 계속해서 섬 밖으로 나가게 되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실은 일본인 어업자, 특히 잠수기 어업자의 진출에 따른 연안바다의 황폐화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일본인 어업자들의 한반도 부근 연안에서의 통어(通漁) 활동이나 이주행위는 일본의 무력에 의한 「한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1876년)이 체결되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 있어 어업의 장래」에는 그 후에 한반도의 여러 항구가 하나하나 개항되어 가는 경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조선으로 일본의 내지 어민 이주의 단서는 메이지(明治) 9년(1876) 부산의 개항무역을 시작으로 동 16(1883) 일본인 민무역 규칙에 의거하여 전라, 경상, 강원, 함경도의 4개 도로 진출하게 되었고, 나아가 동 33년(1900) 9월의 한일협정에 의거하여 새롭게 경기도를 더하게 되었으며, 또한 러일전쟁 시에 군대 부식물로서 어류의 소비가 왕성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충청, 황해, 평안도를 통어구역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동 37년(1904) 3월 22일의 개정 조약에 의해 조선 전역으로 어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43년(1910)에 한일합방 등을 계기로 점점 더 증가하여 오늘에 이르렀다(略)¹⁰⁾. (하선 부분은 원저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의 잠수기 어업자들은 1879년부터 한국 특히 제주도 부근으로 어로활동을 다니기 시작하였다. 잠수기 어업은 지금의 우주복과 비슷한 잠수복을 착용하여 바다 밑에서 조개 등을 채취하는 형태로서, 잠수복 안으로 호스를 통하게 하여 선상(船上)의 펌프로 공기를 들여보내기 때문에, 아주 깊은 바다 속에서도 장시간의 잠수가 가능하다. 1회의 잠수시간은 해녀들이 보통 50초 정도인데 반해서 잠수기 어업자들은 1시간 이상이다. 그리고 태풍 이외에는 거의 쉬는 날이 없었다는 기록이 보일 정도로, 다소 악천후의 날씨에도 조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어장을 남

10) 榎谷政鶴, 「朝鮮における漁業の將來」(『朝鮮』, 91号, 1922).

획하기 일쑤였고 실제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오늘날에는 해녀의 자격이나 수산물의 채취시기, 마을어장 등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고 더욱이 같은 구역 내의 어장에서도 잠수기는 해녀들의 입어가 불가능한 깊은 어장에서만 조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당시는 이와 같은 규제도 없이 아주 얇은 바다 속을 마음대로 휘저으며 잡는 상태였다. 이러한 잠수기 어업의 한국 출어는 1897년 4월 야마구치현(山口縣) 출신의 요시무라요사부로(吉村与三郎)가 잠수기 1대를 가지고 제주도 연안부근에서 조업한 것이 그 시초였다¹¹⁾. 그 후 야마구치현(山口縣)과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도 계속해서 잠수기 어업자들이 진출하였는데, 그들은 제주도를 근거지로 삼으면서 주로 남해안 일대에서 조업하였다.

원래 그들이 한반도 어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일본에서 잠수기 어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메이지(明治) 1년부터 일본 내에서 시작된 잠수기 어업은 「계속 발전한 결과 남획을 초래하게 되었고 연안 어민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하였으며(中略), 그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한국으로의 진출을 계획한 후 제주도 연안으로 출어하게 됐다」¹²⁾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내의 어장으로부터 배척 당한 잠수기 어업자들이 제주도나 반도부의 여러 어촌으로부터 환영받을 리가 만무했다. 제1호였던 요시무라요사부로(吉村与三郎)는 제주도에서 「어민들에게 육지의 상륙을 허가 받지 못하여, 할 수 없이 쓰시마(對馬島)로부터 왕래하면서 조업하였다. 그 후에 어민들을 설득하여 가파도를 근거지로 조업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한국에서 잠수기 어업의 패권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¹³⁾고 한다. 한국어민들의 반발은 잠수기 어업자들에 한해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일본 어민들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은 일본인의 어업권 획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높아졌다. 그런데 일본인 중에는 그러한 한국어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불법조업이나 강도, 심지어는 살인행위 등으로 응수하는 자가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들 수 있다.

- ▶ 1887년(明治 20) 8월, 가파도에서 조업하던 일본인 어민이 모슬포에 상륙하여 농가의 가축을 훔치고 집주인을 살해함.

11) 吉田敬市, 『前掲書』, 1954.

12) 吉田敬市, 『前掲書』, 1954.

13) 吉田敬市, 『前掲書』, 1954.

- ▶ 1892년 2월, 일본인 어민 144명이 성산포에 상륙하여 총포로 위협하고 폭행 및 도둑질을 함.
- ▶ 같은 해 4월, 일본인 어민이 2번에 걸쳐 화북포와 두모포에서 강도, 살인, 부녀자 폭행 등을 일삼음¹⁴⁾.

한국은 외교문제로 다루어 일본에게 바로 범인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일본측은 처음 사건이 발생한 후 여러 사건들이 해결되기까지 5년 동안이나 방치해 버렸다. 조선인 어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일본인 잠수기 어업자들의 한반도 해역으로의 출어는 끊이질 않았다. 그리고 1893년에는 잠수기 어업자들의 수가 수백 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제주도의 잠수가 섬 밖으로 출가물질을 시작하기 2년 전의 일이었다.

남획

일본인 잠수기 어업자들이 진출하기 시작한 이후 약 15~16년 동안에 제주도 연안 어장의 자원은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어로활동을 시작한 시기에 제주도 연안어장에는 엄청난 양의 전복이 있었으며, 1개에 800문(약 3kg) 이상의 전복도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따라서 잠수기 어업자들이 제주도로 진출한 이후에 남획행위는 더욱 심하게 나타났고 어장은 동서연안으로 이동하여」(팔호 내 원저자) 1892~93년경에는 동해안의 강원도 및 함경도 방면으로 진출하였으며, 1899년경에는 서해안 방면으로 다시 새로운 어장을 찾아서 복진하였다¹⁵⁾. 제주도의 연안어장을 마음대로 갈취하고 고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려 하지 않았고, 더욱 더 그 수는 늘어났다.

이 시기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여러 항구의 개항과 더불어 일본 어민들의 어로활동과 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즉 「중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는 데는 군용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동아정책상 한국해역의 개발이 검토되어 각종 정책이 채택되고», 「이주어촌의 경영은 바로 그런 정책구현의 첫 걸음이었다」¹⁶⁾는 것이다.

14) 김창후, 「세화리 해녀항일투쟁(1932)의 역사적 배경」, 韓國文化公報擔當官室 編, 『濟州道誌·上』, 濟州道, 1982 등을 참고하였다.

15) 吉田敬市, 『前掲書』, 1954.

16) 吉田敬市, 『前掲書』, 1954.

잠수기 어업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이주장려를 받는 가운데, 초기에는 왕래하면서 출어하던 어민들이었으나 점점 이주하여 정착하는 어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메이지(明治) 중기부터 제주도를 비롯하여 각지에 전북과 소라 등 일본의 통조림 제조업이 발흥하게 되자¹⁷⁾, 그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면서 잠수기 어업자 수는 더욱 증가하였다. 그리고 1907년(明治 40)경에는 나가사키현(長崎縣), 도쿠시마현(德島縣), 에히메현(愛媛縣), 오이타현(大分縣), 히로시마현(廣島縣), 야마구치현(山口縣), 효고현(兵庫縣), 오카야마현(岡山縣) 및 니가타현(新潟縣) 등지로부터도 300~400대 정도의 잠수기가 등장하여 조업하기에 이르렀다¹⁸⁾. 이와 같은 잠수기 어업의 증가는 남획과 더불어 급격한 자원의 감소를 초래하게 하였다.

1911년 한일합방 다음 해에 조선총독부는 잠수기를 「120대로 제한하고 또 금어기를 정하는 등의 보호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연안어장은 철저히 황폐해졌으며 잠수기 어업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¹⁹⁾

잠수의 출가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주도의 인구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많다. 그렇지만, 잠수기 어업을 비롯한 일본 어민들의 진출과 자원의 남획, 그로 인해 연안어장이 황폐해지는 시기에 제주도 잠수들의 출가물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인구증가만으로 그 배경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2-2. 해녀조합과 <제주도 해녀투쟁>

제주잠수의 출가물질은 반도부인 육지로는 1895년에, 그리고 일본으로는 1903년에 각각 수명의 인술로 시작되었는데, 1915년(大正 4)경에는 그 수가 2,500여명이나 되었다²⁰⁾. 제주 잠수들의 출가물질에 대하여 예구치(江口保孝)가 쓴 「제주도 출가물질 해녀」에는 중매인에게 고용되어 부산까지 기선으로 왕복하는 경우와 제주도에서 어선으로 왕복하는 독립된 형태의 출가물질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일본으로의 출가물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참고로 육지부 쪽으로의 출가물질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17) 吉田敬市, 『前掲書』, 1954.

18) 北野退藏, 『朝鮮に於ける潜水器漁業』(『朝鮮』, 218号, 1933).

19) 吉田敬市, 『前掲書』, 1954.

20) 江口保孝, 『濟州島 出稼海女』(『朝鮮集報』, 1915).

출가 물질하는 기간의 6개월 반(195일) 중 왕복일수 20일을 제외한 175일이 체제일수이고, 이 사이에 물질작업을 한 일수는 87일이다. 1인당 1일 평균 채취량은 돈으로 1엔(円) 정도이므로 물질기간의 평균수입은 1인당 87엔이 된다. 물질작업 기간동안의 식비가 31엔 80전이고, 의류비와 기타 잡비가 6엔 50전, 그리고 입어료(4개소)가 8엔, 어업세가 50전으로 모두 합해서 54엔이다. 총수입의 87엔에서 이 지출분을 뺀 금액인 33엔이 실제 수입이 된다.

저자인 에구치(江口)는 이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출가 물질하는 지역에서 작업을 못하는 날이 생기면 앞에서 기술한 수입을 얻기는 불가능하며, 그 중에는 고용주에게 부채를 지게 되어 그로 인해 고국으로 귀향할 수 없는 잠수도 있는데, 부녀자의 몸으로 수백 해리의 파도를 넘고서 험한 풍우와 싸우고 모든 위험과 곤란을 겪으며 얻어낸 수입으로서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고용주들이 여러 어촌에서 과중한 입어료를 징수한 것처럼, 출가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큰 고통을 받는다.

이와 같은 악조건에 허덕이는 잠수들을 불쌍히 여긴 김태호(金泰鎭)를 비롯한 제주도의 유지들은 잠수들의 권리옹호를 목적으로 1920년(大正 9) 4월에 해녀조합을 창설했다²¹⁾. 이 제주도 해녀조합은 「섬 일원을 조합지구로 하고 조합원을 8,000여명으로 하며, 「본부를 제주면 3도리에 두고 각 면에 12개의 지부를 설치하였으며, 나아가 출가해녀들의 보호감독을 위해 부산에는 출장소를 그리고 목포와 여수에는 가출장소(임시출장소)」를 설치하였다²²⁾.

그러나 총독부의 관제(官制) 조합제도에 의하여 도사(島司)가 조합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결국 조합은 어용 단체화하여 일본인 상인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 당시, 경찰서장이며 검사이기도 한 도사(島司) 다나카(田中半治)는 잠수들의 어획물 판매를 특정 일본인 상인에게 독점하게 하여, 지정가격에 대한 미지불 사실을 묵인하거나, 높은 입어료 외의 판매 수수료나 감찰료(監察料) 등 각종 잡비 명목으로 수입의 반 이상을 징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합 측에 항의하여, 1930년(昭和 5) 9월에, 1천여 명의 잠수들은 어로(잠수) 작업 거부운동을 일으켰다. 또한, 다음해 12월에도 지정가격의 보장을 호소하며

21) 韓國文化公報擔當官室 編, 『前掲書』, 1982.

22) 朝鮮總督府, 『生活實態調査(其 二) 濟州島』, 1929.

조합 측에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32년 1월에 <제주도 해녀항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 “해녀항쟁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연일 크게 보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문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해녀항쟁의 경위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1월 7일 구좌면 하도리의 잠수 300여명이 18개 항목의 요구조건을 호소하며 손에 호미와 비창을 들고 구좌면 일대를 데모하며 행진함. 면 지부장과 면담을 한 후 바로 해산함.
- ▶ 1월 12일 1월 7일의 요구조건에 대한 아무런 회답이 없었기 때문에, 도사(島司)에게 직접 답판을 지으려고 재차 데모를 함. 구좌면과 정의면(현재의 구좌읍과 성산읍) 관내의 6개 마을(하도리, 세화리, 종달리, 연평리, 오조리, 시흥리)에서 1,000명 이상의 잠수가 집결함. 마찬가지로 잠수들은 잠수도구를 손에 들고 행진하다가, 마침 이 날 도내 순찰에 나선 신임 도사(島司) 다구치(田口 禎憲)의 자동차를 포위하여 8개의 요구조건을 들이댐. 5일 이내에 회답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낸 잠수들은 「만세」를 제창하고 데모를 끝냄. 그러나 조합 측은 회답 대신에 사건의 “주모자” 20명을 검거함.
- ▶ 1월 24일 검거자의 석방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1,500여명의 잠수와 이에 호응한 도민들이 검거자들을 이송하려는 호송차를 에워싸서 비창을 휘두르거나 돌맹이를 던지며 무장 경찰과 대치함. 제주도 각지의 주재소원으로 긴급 편성된 무장경관대를 현지로 급파했지만 싸움질은 밤까지 이어짐. 한 때 100여명을 검거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2명의 중상자를 비롯한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하며 진압되었지만, 그 후에 공동판매제가 시행되는 등 몇 개의 사항은 개선조치가 취해짐.

『제주도 해녀투쟁의 사실(史實)』에 의하면, 이때의 참가자수는 연인원수로 계산했을 때 16,306명에 이르고, 그리고 크고 작은 집회나 데모는 238회나 달했다고 한다²³⁾. 아울러 그 당시 잠수들이 주장한 요구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²⁴⁾.

23) 제주도 해녀 투쟁에 대해서는 김창후의 논문을 비롯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金奉鉉의 『濟州島 歷史誌』(非賣品, 發行·全中林, 1960), 김덕호의 「1932년 제주도 해녀들의 반일투쟁」(『역사과학』, 1962), 저자 미상의 『제주도 해녀투쟁의 사실』(1950) 등을 참고로 하였다.

24) 「조선일보」, 1932년 1월 14일 및 24일자.

- (1) 가격등급은 원래 지정한대로 할 것.
- (2) 계약금은 생산자에게 보관하게 할 것.
- (3) 약덕상인 니노미야(二宮)에게 차후에 절대로 상권을 주지 말 것.
- (4) 계약을 무시하고 상인을 옹호한 조합서기, 마스다(升田)를 곧바로 면직시킬 것.
- (5) 일체의 지정판매를 절대반대.
- (6) 미성년자와 4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조합비를 부과하지 말 것.
- (7) 병이나 그 외의 다른 이유로 입어(入漁)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는 조합비를 면제할 것.
- (8) 총대(總代)는 마을별로 공선(公選)할 것.
- (9) 조합재정을 공개할 것.
- (10) 출가물질 증명서를 무료로 발행할 것.

2-3. 1930년대 이후의 수산행정

해녀투쟁에 의하여 잠수들의 노동조건은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 해방되기까지의 15년이라고 하면 한국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으로 돌입함에 따라 한국인들에게는 <황국신민화>정책이 강화되었고, 또한 조선어교육금지(1938년, 昭和 13)와 창씨개명(1939년) 등이 행해졌으며 이 무렵부터 강제연행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총독부는 <제주도 개발>이란 이름 아래 과도한 증산계획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제주도를 대륙침략전쟁에서 병참기지화 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 가령 농업과 축산업은 10년간, 수산업은 15년간에 걸쳐 행하려는 증산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예를 들어 수산업 쪽에서는 실행전과 비교할 때 우뚝가사리 25배, 미역 7배의 수확고를 달성한다는 아주 버거운 것이었다²⁵⁾.

1941년(昭和 16) 12월 태평양전쟁을 발발시킨 일본은 수산업 쪽에서도 한층 더 생산증가정책을 강화하였다. 조선총독부 수산과장인 오카노부(岡信俠助)는 「정어리 잡이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수산업의 지도체제」(이하, 「조선수산업의 지도체제」라 약술함)에서 1943년도는 「결전 하 수산보국체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25) 金奉鉉, 『前掲書』, 1960.

대동아전쟁 하의 생산증강은 촌각의 이완을 허락하지 않는 후방국민의 책무이며, 특히 수산업 사명에서 중대한 것은 식량이 전쟁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다. 수산업에 의한 어개조(魚介藻) 및 그 제조화공품의 생산공급은 군수(軍需) 또는 국민체력의 유지증진에 불가결하여 국가 중요한 산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²⁶⁾.

또한 조선어업조합중앙회 부회장인 기타노(北野退藏)는 「조선 수산계의 제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조선어민을 “격려”하고 있다.

조선의 수산물은 조선 내의 소비를 충족시키는 데 한정되지 않고 종래에 내지(內地) 및 만주에도 옹하고 있었지만, 이 역할은 극히 중대하다. 특히 내지에 있어서는 다수의 청장년을 제일선으로 보내어 노동력이 결핍되고 있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이고, 이에 반하여 조선은 인적 자원에 있어서 거의 정상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내지의 회생을 바탕으로 하여 안거낙업(安居樂業)하고 있는 조선에서는 이러한 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크게 증산에 노력하여 다량의 수산물을 내지로 공출할 의무가 있다²⁷⁾.

전쟁중의 문제로서는 본문에서 화약의 원료로 사용된 감태 자르기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감태는 제주도에 풍부해서 일본인 요오드 제조업자가 일찍이 1915년(大正 4)에 제주도 감태를 매수할 정도였다²⁸⁾. 그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가장 해녀가 많은 우도(구좌면 연평리) 출신의 김경춘 어머니(63세, 도쿄 거주)에 따르면, 전쟁 중에는 우도에서도 화약제조를 위해 감태 자르기 작업이 의무화되었고, 작업에서 얻은 모든 감태가 공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가츠우라(勝浦)의 문만국씨는 고향인 한림읍 옹포리에 있을 때 이미 화약공장이 있었고, 또한 감태가 모아지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감태의 공출은 일본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화약의 원료로서는 감태 이상으로 중요시되던 해산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정어리였다.

전술한 「조선 수산업의 지도체제」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여 역설한 것이다.

26) 岡信依助, 「鯨漁業を中心とする朝鮮水産業の指導體制」(『朝鮮』, 337号, 1943).

27) 北野退藏, 「朝鮮水産界の諸問題」(『朝鮮』, 337号, 1943).

28) 全羅南道 濟州道廳, 『未開寶庫 濟州島』, 1924.

정어리 기름은 글리세린의 급원(給源)이며, 직접 전쟁자료로서 또는 군수 지하자원의 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화약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어리 어업의 사명의 중대함은 생각하건대 생각이 덜 미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略) 그러므로 소화(昭和) 18년도(1943년)의 수산업 조업지도체제로서 정어리 건착망(巾着網) 어업에 중점을 두고 다른 식용어류의 채취를 하는 기선어업을 잠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사태에 당면해 있는 것이다. (略) 결전하에서 정어리의 중요성을 돌이켜 볼 때 일시적으로 식용 어류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참아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화약제조를 위하여 정어리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쓸데없이 버리지 말라는 상황 속에서 잠수들은 식용 패류나 미역 등에 눈을 돌릴 겨를도 없이 강제적으로 감태 자르기 작업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으로 출가물질을 하러 왔던 잠수들은 <후방의 증산>을 달성하고, 일본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인적자원”으로서 환영 아닌 “환영”을 받았던 것이며, 제주도의 연안바다도 일본의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후방기지의 역할을 특특히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